

‘고령화·1인가구’ 급증... 전남 고독사 위험군 2000명

도, 전수조사 통해 위험군 발굴 노인층 82%... 여성 비중 높아 매년 고독사 증가 따른 대책 시급 “실태조사 개선·공무원 역량 강화”



농촌 고령화와 1인가구 급증으로 전남도의 고독사 증가율이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전남지역 고독사 고위험군이 2000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고독사 위험군 발굴조사에서 도내 고독사 위험군은 총 1969명이며 이 중 노인층이 82%인 1614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적으로 50~64세는 271명(14%), 30~40대는 70명(4%), 20대 이하는 14명(0.7%)을 각각 기록했다. 세부적으로 여성이 59%(1160명)로 남성(809명)보다 많았다.

거주구역별로 보면, 면·동·읍 순으로 위험군이 많았으며 위험군의 85%는 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군을 가구특성에 따라 구분하면 차상위계층이 847명(43%)으로 많았고 일반노인도 807명(41%)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시군별로는 여수시(387명)가 가장 많았고 광양시(255명), 고흥군(214명), 장흥군(187명), 해남군(170명), 나주시(137명), 신안군(128명), 강진군(123명), 담양군(105명) 순이었다.

앞서 지난해 12월 보건의복지부는 전남의 고독사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보건의복지부의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구 10만명당 고독사가 매년 증가하는 지역은 전남을 포함해 대전, 경기 등 3곳이다. 전남은 2017년 4.1명에서 2021년 6.8명으로 고독사율이 증가했다. 또 전체 사망자 중 고독사가 차지하는 비중도 대전과 함께 매년 증가 중인 지역으로 꼽혔다. 매년 전남지역의 고독사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이 절실해 보인다.

특히 전남도의 고독사 위험군 실태조사가 좀 더 심도있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실태조사에선 곡성군, 완도군, 진도군은 집계에서 제외됐다. 곡성군은 자체 조사를 시행하고 있지만 완도와 진도의 경우, 고독사 위험군 대상자가 없다고 회신했다. 낙도와 산간지역의 경우, 고독사 실태조사 집계에서 제외됐을 가능성도 커 고독사 고위험군은 더 많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전남도는 시·군간 고독사 위험군을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 조사결과에 격차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일부 지자체가 고독사 위험군을 복지사업 대상자거나 홀몸노인 거주자 위주로 실태조사를 시행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봤다.

도는 향후 일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고독사와 관련한 인식 교육 등 고독사 방지를 위한 인식 강화 방안을 내놓을 계획

이다. 전남의 고독사 위험성과 위험요인을 알리고 안전망 확충과 고독사 예방의 중요성 등을 교육한다는 방침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고독사와 관련된 법률이 있다고 해도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은 고독사 예방의 중요성을 제대로 알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고독사를 막기 위해 일선 시·군의 1대1 전담공무원제 등이 필수적인 만큼 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직무 역량 강화 교육을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 2021년 ‘전남도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해당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지역의 특성에 따른 고독사의 원인과 실태를 파악하는 등 고독사 예방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5년마다 전남도 고독사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최화지기자orchid@jnilbo.com

전남대, 재정지원 4959억원 전국 거점 국립대 1위 차지

전남대학교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사업 수혜실적 부문에서 전국 거점 국립대 1위를 차지했다.

14일 전남대는 정부 4559억원, 지자체 400억원 등 총 4959억원의 재정을 확보해 전국 거점대학교를 비롯해 비수도권 대학 중 가장 많은 재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전남대가 확보한 수혜액은 연차별로 지원받게 된다.

전남대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 혁신사업(RIS)과 두뇌한국21사업(BK21), 3단계산학연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LINC3.0)에서 성과를 거뒀다.

또 소프트웨어중심대학, 인공지능혁신 공유대학사업 등 다양한 재정지원사업에 선정돼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김재윤 전남대 기획조정처장은 “전남대의 교육과 연구 역량의 우수성을 입증했다”며 “확보한 재원으로 교육·연구의 질을 더욱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닦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병하기자

전남도교육청, 교장·교감 등 481명 인사 단행

대상자 희망과 역량 최대한 반영 학교 지원 내실화 추진 인사 배치

전남도교육청이 지역 소멸을 극복하고 미래교육 대전환을 이끌 교장·교감 등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도교육청은 3월 1일자 교장·원장, 교감·원감, 교육전문직원 등 481명에 대한 인사를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인사를 통해 교장·원장 218명, 교감·원감 135명이 승진·전직·전보됐으며, 장학관·교육연구관은 39명, 장학사·교육연구사는 89명이 전직·전보됐다.

학교급 별로는 유치원 15명, 초등 237명, 중등 229명이 자리를 옮겼다.

이번 인사는 대상자의 희망과 역량이 최대한 반영됐으며 교육 현장의 존경과 신망이 두터운 교장 등을 발탁했다.

또 교육전문직원은 도교육청의 조직 개편에 따라 핵심 교육정책들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인물로 구성했으며 교육지원청의 학교 지원 내실화를 추진할



서구 감탄시민단 발대식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과 탄소중립 시민참여단, 국제기후환경센터 관계자들이 14일 광주 서구 518교육관에서 서구 감탄시민단 발대식을 갖고 탄소중립 실천을 다짐하고 있다. 김양배 기자

수 있는 인사를 적재적소에 배치했다.

주요 보직은 전남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지역 소멸을 극복하고 전남교육 대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역량을 갖

춘 인재를 발탁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민선 4기 핵심 과제들을 실천하고 학교 교육력을 강화할 수 있는 인물을 발탁해 적재적소에 배치

할 계획이다”며 “교원들이 학생을 가르치는 데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하는 인사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 관련 명단 17면 양기람 기자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